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6.3.12.(목)		
담당부서	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580)
	자본시장총괄팀	담당자	부국장	장재훈	(02-3145-7570)
	파생상품시장팀		팀 장	김윤조	(02-3145-7600)
	자산운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	유석호	(02-3145-6700)
	자산운용총괄팀	담당자	팀 장	김민수	(02-3145-6702)
	금융시장안정국	책임자	국 장	박상만	(02-3145-8170)
금융시장총괄팀	담당자	팀 장	김은성	(02-3145-8180)	

금감원, 원유 등 상품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'26.3.12.(목)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(자본시장·회계) 주재로 원유 등 상품시장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,
 -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현황을 점검하고,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

원유 등 상품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요

- ☑ (일 시) 2026. 3. 12.(목) 10:00 ~ 11:00
- ☑ (장 소) 금융감독원 회의실
- ☑ (참석자) [금감원] 황선오 자본시장·회계 부원장, 자본시장감독국장, 금융시장안정국장
[전문가]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(2명), 원유 ETF·ETN 등 상품운용 담당자(3명), 현대경제연구원(1명) 등 6명

II 주요 논의내용

-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**상품시장 전문가들**은,
 - 중동상황으로 인해 원유·천연가스 등 실물자산의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,

- 유가 급등락 시에는 원자재 ETF·ETN 등의 실제 가치와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괴리되는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함
 - 특히,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변동성 장세에서 음(-)의 복리 효과*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
- * 음(-)의 복리 효과 : 지수 등락 반복 시 레버리지 상품 등의 누적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현상

□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은,

-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어 원유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고,
 - 증권사·자산운용사에 대해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·관리하도록 강조하였음
 - 또한, 관련 상품의 고유 특성과 손실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요청함
 - 아울러, 투자자들 또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자재 관련 상품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식*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
- * (붙임) 「원자재 ETF·ETN 투자자 유의사항」 참조

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상품시장 및 이와 연계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동향 등을 상시 주시하고,
 -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가

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, ETN · ETF에 투자할 때는 관련 위험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

- 최근 증동 상황 등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관련 국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
 -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투자자는 원자재 ETN · ETF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

원유 기초 ETP 일평균 거래대금

(단위 : 백만원)

	'25.4분기(A)	'26.1월	'26.2월	'26.3.1~3.10.(B)	증가율[(B-A)/A]
일반	5,652	5,738	3,578	70,848	1,153.6%
일반외	14,310	19,730	11,786	96,775	576.3%
레버리지	9,410	10,117	5,005	45,111	379.4%
인버스*	4,900	9,613	6,781	51,664	954.4%
합 계	19,962	25,468	15,364	167,624	739.7%

* 인버스의 경우 -1배 및 -2배 포함

- 특히, 레버리지·인버스 상품의 수익률은 기초자산 수익률에 추적배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므로 투자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,
 -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우,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“음(-)의 복리효과”도 발생함에 유의

나

괴리율 확대 상황에서 투자할 경우 잠재적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사전에 괴리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

- 수급 불균형으로 ETN · ETF의 괴리율이 확대되는 경우 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
 - 괴리율이 양수(+)인 경우 상품이 내재가치 대비 비싸게 거래*되는 것으로, 향후 가격이 정상화되는 경우 괴리율만큼 투자손실이 발생
- * 괴리율은 ETN · ETF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 간의 차이를 의미. 상품(100)의 괴리율이 +10%라면, 해당 상품이 시장에서 고평가된 가격(110)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
- 따라서 투자자는 사전에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